학령기를 맞는 어린이의 생활능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Achievement of Readiness for School in First Grade Children

이화여자대학교 가정대학 가정관리학과
교수 박 상 인
교수 이 병 림

Dept. of Household Administration College of Home Economics
Ewha Womans University
Prof.; **Sang In Pak**
Prof.; **Byung Lim Lee**

<목 차>

Ⅰ. 서 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필요성
3. 이론적 배경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2. 측정도구
3. 연구절차
4. 자료처리
Ⅲ. 결 과
1. 생활능력의 준비정도
2. 아동의 생활능력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3. 어머니와 교사간의 어린이 생활능력 평가의 비교
Ⅳ. 논 의
부 록
참고문헌

<Abstract>

This stdny is an attempt to analyze the child's readiness for school and to pursue the facts that influence the readiness. The child's readiness for school was analyze on the developmental tasks in terms of physical, intellectual, social and moral development of first graders. On the facts that influence the readiness, age, sex, home environment and preschool experiedces were surveyed.

Ⅰ. Objectives

1. To survey the actual developmental conditions of physical, intellectual, social, and moral development of first graders.
2. To analyze the differences of school readiness in of sex, age and birth order.
3. To analyze the influence of home environment and preschool experience upon readiness.
4. To survey the differences of evaluation between parents and teachers on achievements of readiness.

Ⅱ. Method

1. Subjects were 848 mothers of primary school first graders and 20 primary school teachers. By the stratifeed sampling method, Seoul city was divided into three types of districts.
2. Measurement tool was the check test for the child's readiness for school.

* 본 논문은 문교부 연구비에 의한 것임.

Ⅱ. Results

1. The findings of the analysis of developmental task on physical, intellectual, social and moral development of first graders were scown as below.

	always	sometimes	rarely
Total answer to the check test	57.9%	26.5%	15.6%

2. According to the increasing age, there seems to be an increasing tendency in terms of readiness in physical, intellectual, social development but moral development.
3. Girls were significantly higher than boys in various achievements of their developmental tasks.
4. There was no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birth order and readiness for school
5. There was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home environment (social-economic, class, parent's educational background, study room in home,and etc.) and achievements in developmental tasks.
6. There was a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preschool experience in nursery school, day care center, and kindergarten and child's for school.
7.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evaluation of child's readiness for school between parents and primary school teachers. (parents were more generous than teachers in evaluation.)

Ⅰ. 서 론

1. 연구의 목적

개체는 성숙과 학습을 통하여 발달하며 학습에는 가장 적절한 성숙의 시기가 있다.

본 연구는 학령기를 맞는 어린이의 성숙도 즉 어린이가 가정 및 학교에 적응할 수 있는 생활능력의 준비가 어느정도 되어 있나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을 자세히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1) 현재 국민학교 1학년 어린이의 신체적, 인지적, 도덕적 생활능력이 어느정도 발달되어 있나를 알아보고자 한다.

2) 어린이의 선천적인 변인에 따라 어린이의 생활능력 발달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3) 어린이의 환경적 변인 즉 사회적, 경제적 변인이 어린이의 생활 능력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지 보고자 한다.

4) 어린이의 생활능력 평가에 있어 어머니와 교사사이에 차이가 있는지를 보고자 한다.

2. 연구의 필요성

인간은 태어나서 성인이 될때까지 각 연령단계에 따라 변화가 있고 발달과업이 있다. 발달 단계의 구분은 학자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는데 Gesell[1]의 발달단계에 따르면 5세부터 12세까지를 아동기 또는 학동기로 구분하였고, Tompson (1962)[2]은 6세에서 9세까지는 국민학교 아동 전기, 9세에서 12세까지는 국민학교 아동후기로 분류하였다 그러나 Hurlock (1953)[3]은 2세에서 6세까지를 아동초기, 6세에서 10세 또는 12세까지는 아동후기로 분류하였다.

이와같이 발달 단계에 따른 아동기의 분류에는 약간 차이가 있으나 학령기의 분류는 일정한 것이 특징이다.

Gesell (1946)[4]은 학교는 학령기를 맞이한 어린이가 자신의 감정과 지적인 Image를 연결시킬 수 있도록 인각적이고 문화적인 경험을 제공한다고 주장했다. 가정환경을 중심으로 성장해온 어린이가 학교라는 사회집단에 속하게 되는 것은 획기적인 변화이다. 그리고 학령기를 맞이한 어린이는 심신이 모두 유아기의 연장이므로 아직 의존적이고 자기중심적이며 감정적이기 쉽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어린이가 자기 중심성을 적당히 만족하면서 점진적으로 사회적인 행동을 발전시킬수 있도록 계속적인 훈련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학령기를 맞이한 어린이

의 발달특성 및 성숙도를 알아서 여기에 따른 교육을 시키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시기적인 문제에 있어서 정상적인 어린이도 평균수준의 발달보다 6개월 또는 1년정도는 빠르거나 늦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Hedges (1977)[5]는 실험과 연구를 통해서 나이는 입학연령이 안 되었어도 머리가 영리한 어린이는 소위 조기입학 program에 의하여 입학 시키는 방법을 실행했으나 실패하였다. 이것은 학교 생활은 좋은 머리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수준 이상의 성숙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이와같이 교육적인 면에서 readiness는 중요하므로 어린이의 각 연령에 따른 발달정도를 측정하는 연구가 많이 실행되어 왔고 특히 아동의 정서 및 사회성발달등에 많은 관심을 가져왔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연구에서는 학령기를 맞는 어린이의 각 발달정도가 어느정도이며 이들이 학교와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생활능력의 발달정도가 어느 수준인지에 관한 연구는 없었다. 따라서 학령기를 맞는 어린이의 생활능력을 파악할만한 기초 자료도 없다.

본 연구는 교육적으로 어린이의 생활능력 발달정도가 어느정도 되어 있나를 파악하므로써 부모 및 교사가 어린이의 생활을 지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 가정학적으로는 가정환경 및 아동의 초기 경험이 어린이의 생활능력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는데 의의가 있는 것이다

2. 이론적 배경

(1) 생활능력의 정의

본 연구에서의 생활능력이란 아동의 신체, 정서인지, 사회성, 그리고 도덕성 발달 모두와 관련된 아동의 성숙도 즉 아동이 전단계의 발달과업을 잘 수행하여 학령기를 맞아서 가정이외의 사회생활도 잘 해나갈수 있는 준비성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분류해 보면 신체적 생활능력이란 어린이가 학습 및 생활에 필요한 기구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과 운동 능력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것은 어린이의 신체발달, 운동능력(motor activity) 그리고 eye-hand coordination등이 관계되어 나타나는 생활능력이다.

인지적 생활능력은 어린이의 기억, 지각, 사고의 발달에 따른 생활능력과 정서발달과도 관계있는 인내력, 자발성, 판단력, 자제력등을 모두 의미한다.

사회적 생활능력은 어린이가 타인과의 관계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과 적응력 그리고 위생에 관계된 일의 수행력을 말하는 것이다.

인지 및 사회적 행동발달에 따라 어린이는 자신의 역할을 알게되고, 사회적 환경을 통해서 적응력도 배우게 된다.

piaget(1965)[6]와 selman(1971)[7]는 어린이의 도덕적 개념은 어른과는 질적으로 다르며, 여러 단계를 거쳐 성숙되는 것으로써 단계적 발달에 있어 이전단계에 새로운 개념이 단순히 부가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도덕적 생활능력이란 어린이가 생의 의미를 이해하기 시작하여. 남성—여성 성차를 인식하고 있는 것과 성역할의 차이, 영적이나 물리적인 세계의 본질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 능력이다. piaget(1965)[8]의 도덕성 발달 5단계에 의하면 만 6세 아동은 제 2 단계인 성인의 요구에 합치하는 단계(conformity to adult requirement)에 속한다.

(2) 발달의 이론

인간의 생활은 수정으로 부터 시작하여 성숙에 이르기까지 계속적인 변화의 과정이며 이 변화의 과정을 발달이라고 한다.

Lewin(1943)[9]은 발달이란 통일성을 가진 인격체가 그 통일성을 유지해 가면서 점차 분화되어 그 의미가 보다 풍부하게 변해가는 것이라고 보았다. Hurlock(1978)은 발달을 크기의 변화, 비율의 변화, 낡은 특징의 소멸, 새로운 특징의 획득으로 분류하고 이러한 요인들의 작용에 의해 일어나는 과정을 발달이라고 보았다.[10] 또한 Koffka는 발달은 유기체와 기관이 양에 있어서 증대하고 구조에 있어서 정밀화하며, 기능에 있어서 유능화되어가는 과정이라고 보았다.

이와같이 발달의 개념은 모두가 발달을 생활체의 적극적이고 진보적인 변화로 보고있다. 그리고 발달(Development)이란 성장(growth)과는 다른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양적으로 뿐만 아니라 질적

으로도 변화하는 계속적인 과정인 것이다.

발달은 다시 성숙과 학습의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성숙은 개체가 태어나면서 부터 진행되는 생득적 규정에 의한 것이고, 학습은 후천적인 획득성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라 볼 수 있다.[12] 또한 개체는 성장해 가는 동안 일정한 시기에 이르러 어떠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데 이때 그 기능이 성숙했다고 한다.

Mcconnell은 발달은 개체와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의한 산물이며 점진적 과정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발달은 일정한 순서를 밟으며, 분화와 통합의 과정이며 발달에는 개인차가 있다고 주장했다.[13]

인간의 발달에 개인차가 있는 것은 선천적인 유전의 영향도 크지만 개체는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발달하므로 각각의 개체는 제각기 독특한 양과 질 그리고 속도를 가지고 발달하게 되는 것이다.

Buseman은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는 환경을 물리적, 생물학적, 사회적, 정신적, 환경의 4단계로 나누었고, 개체의 발달 단계에 따라 교육적인 관점에서의 환경은 가정, 학교, 사회환경으로 나누고 있다.

(3) 발달의 과업

발달과업(Developmental Tasks)이란 개체가 정상적인 성장 발달을 이룩하기 위하여 일정한 시기에 발달하여야만 하는 과업을 의미한다.

Havighurst(1972)[14]는 발달과업은 개체가 일생중에 어떠한 일정한 시기 또는 그와 유사한 시기에 나타나는 과업으로써 그 과업을 성공적으로 성취하면 행복을 누릴수 있고 후의 과업도 성공적으로 해 낼수 있으나 반면에 실패하면 개인적으로 불행하고 사회적으로도 인정을 받지 못하며, 후의 발달과업도 어렵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발달과업은 문화에 따라 차이가 나고 각 문화권 안에서도 종교에 따라 다르며 같은 지역사회에서도 어린이가 속한 환경에 따라 차이가 난다.

본 연구는 어린이가 국민학교 입학후 가정 및 학교에서의 과업을 얼마나 잘 수행할 수 있는가를 보기위한 것으로써 Duvall 이 제시한 학령전 아동의 발달과업 및 가족의 발달과업을 보고자 한다.

가. 학령전 아동의 발달과업

유아기를 지나 아동기를 맞는 어린이는 이제 학교에 갈 준비를 해야한다. 이 시기의 어린이는 신체적 성장은 감소하고 정서적, 인지적 발달은 증가하며, 외부환경과의 접속도 증가하게 된다.

Duvall이 제시한 학령전 아동의 발달과업은 다음과 같다.

① 매일의 일상적인 활동 및 휴식을 건강하게 해결하는일

② 좋은 식습관을 익히는일

③ 배변훈련의 완성

④ 개체의 운동발달 단계에 맞는 신체적 Skill의 발달

⑤ 가족성원으로서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의 형성

⑥ 자신의 충동억제와 타인의 의사를 존중하기 시작하는 일

⑦ 폭넓은 경험으로 건전한 감정 표현의 발달

⑧ 타인과 효과적으로 대화할 수 있도록 학습하는 일

⑨ 잠재적으로 위험한 상황을 취급할 수 있는 능력의 발달

⑩ 주체성과 양심을 갖은 개체로서의 발달

⑪ 생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기저의 형성등이다.

나. 학령전 아동을 갖은 가족의 발달과업

부모와 이외의 가족은 어린이가 자신의 발달과업을 잘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특히 부모는 어린이가 성장함에 따라 신체적 도움은 점차 감소하고 다른 종류의 도움이 필요하게 되므로 익애와 태만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한다. 어린이에게 능력이상의 일을 강요하여 자존심을 높여주는 것보다 책임감있게 자신의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발달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가족의 발달과업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확대되는 가족을 위하여 적절한 공간과 설비를 제공한다.

② 어린이가 있는 가족생활에서는 예비비의 비축이 필요하다.

③ 확대되는 가족안에서 가족성원간에 공동 책임을 갖게한다.

④ 만족스러운 성관계와 미래의 자녀를 위한 계획을 세운다.

⑤ 가족안에 효과적인 의사소통의 조직을 만든다.

⑥ 친척 및 이웃과의 관계를 잘 유지한다.

⑦ 계속 변화하는 자극에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한다등 이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1980년 4월에 실시했으며, 연구의 대상자는 서울특별시국민학교 1학년 어린이였으며 피조사자는 이를 어린이들 자녀로둔 어머니 872명과 현직교사 20명이었다. 피조사자는 서울시 교육위원회에서 지정한 가, 나, 다군에서 4개 학교를 임의로 선정하여 표집하였다. 자료는 어머니로 부터 회수된 848부와 교사로 부터 회수된 20부가 사용되었다. 본 연구의 실재 대상자수와 연령별 분포는 표 1,2와 같다.

표 1. 어린이 대상자의 수

군별 \ 성별	남	여	합계
가 군	115	103	218
나 군	172	165	337
다 군	141	152	293
합 계	428	420	848

표 2. 어린이의 연령별 분포

연령별	N(%)
6세 미만	508(60.0)
$6\sim6\frac{1}{2}$	259(30.5)
$6\frac{1}{2}\sim7$	48(5.6)
7세이상	11(1.2)
무응답	22(2.7)
계	848(100)

본 연구의 피조사자가 응답한 가정의 생활정도 및 부모의 교육정도를 분류한 것은 표 3,4와 같다.

표 3. 가정의 생활정도 분포

생활정도	N(%)
상	9(1.1)
중 상	73(8.6)
중	423(49.9)
중 하	200(23.6)
하	148(16.9)
계	848(100.0)

표 4. 부모의 교육정도분포

교육 정도별	父 N(%)	母 N(%)
국졸이하	10(1.2)	25(2.9)
국 졸	36(4.3)	118(13.9)
중 졸	128(15.1)	275(32.4)
고 졸	334(39.5)	277(32.7)
전문대졸	6(0.7)	8(0.9)
대학중퇴	58(6.9)	17(2.0)
대 졸	219(25.9)	119(14.0)
대학원졸	54(6.4)	9(1.1)
T	845(100.0)	848(100.0)

2. 측 정 구

본 연구의 조사에 사용된 검사는 어린이의 준비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학령전 어린이의 발달과업중 학습해야할 구체적인 내용을 Check 하였다.

이것은 Fay Moeller (Duvall, 1967)가 어린이의 국민학교 입학전 준비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한 Test를 참고로 하였고, 국민학교 1학년을 다년간 경험한 교사와 현재 자녀를 국민학교 1학년에 입학시킨 어머니에게 자문을 구하여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설문지의 전문은 모두 100개 문항이며 내용별로 분류하면 표 5와 같다.

3. 절 차

서울시 교육위원회가 지정한 "가"군에서 2개학

표 5. 조사의 내용별 해당 문항 번호

내 용	문항번호
학습준비능력	20~23
기구 사용 능력	24~31
운동 능력	88~90, 93
기 억 력	1~4
공간지각	5~12
수 개 념	13, 17~19
시간 개념	14~16
전달 능력	38~40, 42
인 내 력	41, 44~46, 48
자 발 성	33, 49
판 단 력	51~55
자 제 력	50, 69, 70
정리능력	34~36
적 응 력	66, 67, 75~77
책 임 감	47, 48
협 동	64, 65, 71
동 일 시	72~74
청 결	78~80
배 설	81~83
의 복	84~87
식 사	91, 92, 94
예 의	32, 37, 95~97
준 법	56~58, 62
복 종	59~61
생의 의미	98~100

교, "나"군에서 1개학교 그리고 "다"군에서 1개학교를 임의로 추출하여 모두 4개학교에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본 설문지는 국민학교 1학년 선생님을 통해서 배부하고 아동들이 집으로 가져가 부모가 응답하게 한후 각 담임선생님을 통해 회수하였다. 또한 교사 20명에게도 같은 설문지를 배부하여 회수하였다. 회수된 자료는 "가"군에서 218부, "나"군에서 337부, 그리고 "다"군에서 239부로 총 848부였다. 교사에게 배부한 20부는 모두 회수되었다.

4. 자료분석

생활능력은 신체적, 인지적, 사회적, 도덕적 능력으로 분류하였고 척도들은 구성문항수에 따라 점수의 총점을 구하고 빈도수를 산출하였다. 배점은 각 문항마다 "언제나"는 3점, "때때로"는 2점, "아니다"는 1점으로 하였으며 부정적인 진술 문의 경우에는 위와같은 반응에 따라 반대로 점수를 주었다.

어린이의 선천적, 환경적 변인에 따라 생활능력이 차이가 나는지를 보기 위하여 T-test, F-test 그리고 R-test로 검증하였다.

Ⅲ. 결 과

1. 생활능력의 준비정도

(1) 신체발달과 관계된 생활능력

어린이의 신체발달과 관계된 생활능력 즉 신체적 생활능력은 학습준비능력, 기구사용능력, 운동능력으로 나누어 측정한 결과 표 6과 같은 발달정도를 보였다.

표 6. 신체적 생활능력의 발달정도

구분 / 빈도 / 신체적생활능력	언제나 N(%)	때때로 N(%)	아니다 N(%)	계 N(%)
학습준비능력	602 (71.0)	185 (21.8)	61 (7.2)	848 (100.0)
기구사용능력	498 (58.7)	186 (21.9)	164 (19.4)	848 (100.0)
운동능력	576 (67.9)	162 (19.1)	110 (13.0)	848 (100.0)
전 체	559 (65.9)	178 (20.9)	111 (13.2)	848 (100.0)

표 6에서와 같이 어린이의 신체적인 성숙도와 관계있는 생활 능력은 65.9%가 잘 준비되어 있었고, 20.9%는 보통정도 였으며, 12.2%는 준비가 잘 안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신체적 생활능력중에서는 학습준비능력이 "언제나"인 경우가 71%로 가장 잘 발달되어 있는 반면에 기구사용능력이 "언제나"인 경우는 58.7%로 준비가 아직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인지발달과 관계된 생활능력

어린이의 인지적 생활능력은 지각발달과 정서 및 성격발달도 포함시켜 측정하였다. 그러나 생활과 관계있는 인지발달이므로 지능에 관한것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아동의 인지적 생활능력의 발달정도는 표 7과 같다.

표 7. 인지적 생활능력의 발달정도

구분 / 빈도 / 인지적생활능력	언제나 %(N)	때때로 %(N)	아니다 %(N)	계 %(N)
기억력	88.7 (752)	5.8 (49)	5.5 (47)	100.0 (848)
공간지각	69.5 (589)	18.8 (160)	11.7 (99)	〃
수개념	57.3 (486)	16.2 (137)	26.5 (225)	〃
시간개념	69.2 (587)	20.6 (175)	10.2 (86)	〃
전달능력	56.0 (475)	32.2 (274)	11.8 (99)	〃
인내력	42.2 (358)	41.4 (351)	16.4 (149)	〃
자발성	56.7 (481)	30.8 (262)	12.5 (105)	〃
판단력	44.3 (375)	36.9 (313)	18.8 (160)	〃
자제력	42.2 (358)	34.9 (296)	22.9 (194)	〃
전체	58.5 (495)	26.4 (224)	15.1 (129)	〃

표 7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인지적 생활능력은 58.5%는 잘 준비되어 있었고, 26.4%는 보통이었으며 15.1%는 준비가 잘 안되어 있었다. 인지적 생활능력중에서는 기억력이 "언제나"인 경우가 88.7%로 가장 잘 발달되어 있었고 인내력이 "언제나"인 경우는 42.2%로 발달이 가장 늦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판단력이 "언제나"인 경우도 44.3%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어린이의 정서 불안과 자기중심적인 사고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수 있다.

(3) 사회성발달과 관계된 생활능력

어린이의 사회적 생활능력은 자기일을 정리 정돈할 수 있는 독립심과 타인과의 관계에서 책임감을 갖고 협동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지를 보았다. 그리고 동일시(Identification)의 작용과 위생에 관계된 행동도 사회적 생활능력으로 측정 하였다.

어린이의 사회적 생활능력은 표 8에 나타난바와 같다.

표 8. 사회적 생활능력의 발달정도

구분 / 빈도 / 사회적생활능력	언제나 %(N)	때때로 %(N)	아니다 %(N)	계 %(N)
정리능력	57.2 (485)	32.7 (278)	10.1 (85)	100.0 (848)
적응력	29.5 (250)	26.3 (223)	44.2 375)	〃
책임감	38.1 (324)	44.1 (373)	17.8 (151)	〃
협동	57.4 (486)	31.4 (266)	11.2 (96)	〃
동일시	56.9 (482)	28.6 (251)	13.5 (115)	〃
청결	58.8 (498)	25.6 (216)	15.6 (134)	〃
배설	89.5 (759)	8.9 (75)	1.6 (14)	〃
의복	71.9 (610)	20.7 (175)	7.4 (63)	〃
식사	53.4 (453)	30.9 (262)	15.7 (133)	〃
전체	57.0 (483)	27.8 (235)	15.2 (130)	〃

표 8에서와 같이 사회적 생활능력이 잘 되어 있는 경우는 57.0%이고, 보통정도는 27.8%이며, 아직 잘 준비가 안되어 있는 경우는 15.2%로 나타났다. 사회적 생활능력중에서는 배설에 관계되는 것이 "언제나"인 경우가 89.5%로 가장 높았고, 적응력은 "언제나"인 경우가 25.9%로 준비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또한 책임감도 "언제나"인 경우는 38.1%로 나타냈는데 이와같은 결과를 통해서 학령기를 맞은 어린이는 배설에 관계된 것은 대부분 학습이 되었다고 볼 수 있고, 사회와의 접촉은 부족해서, 사회성은 아직 미성숙단계임을 알 수 있다.

(4) 도덕성 발달과 관계된 생활능력

어린이의 도덕적 생활능력은 예의 준법, 복종, 생의 의미로써 발달정도를 보았다. 즉 생활관습과 가치관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인지를 측정한 것이다. 결과는 표 9에 나타난 바와 같다.

표 9. 도덕적 생활능력의 발달정도

구분 / 빈도 / 도덕적생활능력	언제나 %(N)	때때로 %(N)	아니다 %(N)	계 %(N)
예 의	58.4 (495)	29.3 (248)	12.3 (105)	100.0 (848)
준 법	48.6 (412)	29.3 (248)	22.1 (188)	〃
복 종	67.8 (575)	29.6 (251)	2.6 (22)	〃
생 의 미	20.1 (221)	33.1 (281)	40.8 (346)	〃
전 체	50.2 (426)	30.3 (257)	19.5 (165)	〃

표 9에서와 같이 도덕적 생활능력은 잘 준비되어 있는 경우가 50.2%이고, 보통정도의 발달은 30.3%이며, 아직 잘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19.5%로 나타났다. 그리고 도덕적 생활능력 중에서는 복종이 "언제나"인 경우가 67.8%로 가장 잘 발달되어 있는 반면에 생의 의미에 대한 발달정도가 "언제나"인 경우는 20.1%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학령기를 맞은 어린이는 아직 삶이나 종교에 대한 개념형성이 되어있지 않다고 볼 수 있다.

(5) 각 발달별로 본 생활능력

어린이의 신체적, 인지적, 사회적, 도덕적 생활능력발달을 비교한 결과는 표 10과 같다.

표 10에서와 같이 신체적 생활능력은 학습준비능력, 운동 능력 그리고 기구사용능력순으로 높은 점수를 보였다. 학령기를 맞은 어린이는 기구사용능력이 아직 미숙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지적 생활능력중에서는 기억력이 가장 좋았고 자제력이 가장 낮은 준비도를 보였다. 그밖에 공간지각이나 시간개념은 발달이 잘되어 있는 편이나 전달능력과 자발성은 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고, 수개념, 판단력, 자제력에 관한 생활능력의 준비는 낮게 나타났다.

표 10. 각 생활능력 별비교

생활능력 \ 평균점수	평균(S.D.)	개개점수
학습준비능력	10.55(1.67)	2.64
기구사용능력	16.76(2.95)	2.39
운동능력	10.20(1.54)	2.55
신체적능력	37.51(4.84)	2.50
기억력	11.33(1.03)	2.83
공간지각	20.62(2.21)	2.58
수개념	9.23(1.74)	2.30
시간개념	7.77(1.40)	2.59
전달능력	9.77(1.49)	2.44
인 내 력	9.16(1.65)	2.29
자 발 성	4.89(1.03)	2.45
판 단 력	11.27(2.14)	2.25
자 재 력	6.58(1.30)	2.19
인지적능력	84.04(6.93)	2.27
정리능력	7.41(1.44)	2.47
적 응 력	9.26(2.14)	1.85
책 임 감	4.40(1.25)	2.20
협 동	7.38(1.27)	2.46
동 일 시	4.68(1.06)	1.56
청 결	6.12(1.60)	2.04
배 설	8.63(0.83)	1.88
의 복	10.35(1.81)	2.59
식 사	7.13(1.50)	2.38
사회적능력	65.36(7.13)	2.25
예 의	12.30(2.06)	2.46
준 법	9.06(1.51)	2.27
복 종	7.95(1.16)	2.65
생 의 미	5.56(1.75)	1.85
도덕적능력	38.48(4.43)	2.32

사회적 생활능력을 보면 배설에 관한 일을 가장 잘 처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적응력이 가장 부족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의복에 관한 것은 어

표 11. 연령별에 따른 생활능력

연령별 / 평균(S.D.) / 생활능력	6세미만	$6\sim6\frac{1}{2}$	$6\frac{1}{2}\sim7$	7세이상	F	R
	평균(S.D)	평균(S.D)	평균(S.D)	평균(S.D)		
신체적 생활능력	37.08(4.82)	38.17(4.78)	37.65(5.17)	38.45(4.52)	3.03*	0.067*
인지적 생활능력	83.60(7.13)	84.86(6.58)	85.29(6.45)	83.00(6.68)	2.48	0.082**
사회적 생활능력	64.66(7.44)	66.54(6.54)	66.06(6.91)	65.75(5.24)	4.17**	0.089**
도덕적 생활능력	34.66(4.56)	35.26(4.29)	35.04(4.05)	33.55(4.37)	1.39	0.024

*p<.05, **p<.01.

느정도 독립했다고 볼 수 있고 그밖에 정리능력, 협동, 식사에 관한 것도 준비도가 높은 편이나 책임감, 청결, 적응력, 동일시에 대한 것은 아직 미숙한 것으로나타났다.

도덕적 생활능력에서는 복종적인 것이 가장 준비가 잘되어 있는 반면에 생의 의미에 대한 가치를 인식하고 생활하는 능력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아직 미성숙했기 때문일 수도 있고 학습이 안되었기 때문에 나온 결과일 수도 있다. 기타 예의나 준법에 관한 생활능력도 어느정도는 준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적, 인지적, 사회적, 도덕적 생활능력을 비교해보면 신체적 생활능력이 가장 준비가 잘 되어있고 다음 도덕적 생활능력이며, 인지적 생활능력, 사회적 생활능력순으로 준비가 되어 있었다. 전체적으로 생활능력을 비교해보면 아직 준비도가 낮은 것은 판단력, 자제력, 적응력, 동일시, 생의 의미에 관한 것이었다.

2. 아동의 생활능력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선천적인 변인에 따른 생활능력

가. 연 령

본 연구의 대상자는 모두 국민학교 1학년생이었으나 이들 어린이들의 연령에는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연령에 따라서 생활 능력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결과는 표 11과 같다.

어린이의 연령에 따라 4집단으로 나누어 각 집단안에서 신체적, 인지적, 사회성, 도덕성 발달에 따른 생활능력 구분간 점수의 평균차를 F검사를 통해 검증하였다.

신체적 생활능력은 연령간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p<.05). 그리고 사회적 생활능력도 연령간의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왔으며 (p<.01), 인지적 도덕적 생활능력은 연령간의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또한 R검증결과 신체적, 인지적, 사회적 생활능력은 어린이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발달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도덕적 생활능력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령기를 맞은 어린이의 생활능력 발달에서 연령은 중요한 요인으로 여겨진다.

나. 성 별

성별에 따른 생활능력의 차이를 보기 위하여, 남성—여성 각 집단의 생활능력 점수의 평균차를 T검사를 통해 검증하였다.

표 12. 성별에 따른 생활능력

성별 / 평균(S.D) / 생활능력	남	여	T
	평균(S.D)	평균(S.D)	
신체적 생활능력	36.90(4.90)	38.11(4.69)	−3.67**
인지적 〃	83.69(6.86)	84.36(6.97)	−1.41
사회적 〃	63.28(7.14)	67.45(6.46)	−8.91**
도덕적 〃	34.56(4.54)	35.16(4.27)	−1.99*

*p<.05, **p<.01.

표 12와 같이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것은 신체적, 사회적, 도덕적 생활능력이었고, 인지적 생활 능력은 성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생활능력은 남자 어린이보다 여자 어린이가 준비가 더 잘 되어있는 것을

표 13. 출생순위에 따른 생활능력

생활능력 \ 출생순위	맏 이	중 간	막 내	F
	평균(S.D)	평균(S.D)	평균(S.D)	
신체적 생활능력	37.59(4.76)	37.81(4.63)	37.30(4.97)	0.70
인지적 생활능력	84.09(7.21)	84.40(6.48)	83.85(6.89)	0.36
사회적 생활능력	65.17(7.34)	66.48(6.39)	65.03(7.23)	2.52
도덕적 생활능력	34.76(4.65)	35.32(4.12)	34.77(4.36)	1.04

표 14. 생활 정도에 따른 생활능력

생활능력 \ 생활정도	상	중 상	중	중 하	하	F
	평균(S.D)	평균(S.D)	평균(S.D)	평균(S.D)	평균	
신체적 생활능력	39.18(6.08)	37.84(4.95)	38.03(4.60)	36.85(4.85)	36.57(5.16)	4.12**
인지적 생활능력	85.22(7.00)	84.71(7.39)	84.51(6.85)	83.62(6.55)	82.80(7.34)	2.06
사회적 생활능력	68.00(7.99)	66.92(6.86)	65.98(7.02)	64.03(6.84)	64.42(7.60)	4.43**
도덕적 생활능력	35.22(3.53)	35.89(4.23)	35.46(4.24)	34.22(4.44)	33.50(4.67)	7.59**

**$p<.01$

알 수 있다.

다. 출생순위

어린이의 출생 순위에 따라 생활능력에 차이가 있는지를 보았다. 어린이의 출생순위는 맏이, 중간, 막내로 구분하였고 이들 각 집단의 생활능력 점수의 평균차를 F검사로 검증하였다. 결과는 표 13과 같다.

표 13에서와 같이 어린이의 출생순위에 따라 생활능력이 차이가 나지는 않았다. 여기서 출생순위가 어린이의 생활능력 발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볼 수 있다.

(2) 환경적인 변인에 따른 생활능력

가. 생활정도

가정의 생활정도에 어린이의 생활능력이 차이를 보이는지 알기 위하여 생활정도를 상, 중상, 중, 중하, 하의 5집단으로 나누었다. 이들 각 집단의 생활능력별 점수 평균차를 F검사로 검증하였다.

표 14에서와 같이 생활정도에 따라 신체적, 사회적, 도덕적 생활능력은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p<.01$). 그러나 인지적 생활능력은 생활정도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어린이의 생활능력은 가정의 생활수준에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

나. 어머니의 교육정도

가정에서 아동의 생활을 지도하는 것은 주로 어머니이므로 어머니의 교육정도에 따라서 아동의 생활능력이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보았다.

F검증 결과 어머니의 교육정도에 따라 어린이의 신체적, 사회적 생활능력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05$). 그리고 인지적, 도덕적 생활능력도 좀 높은 수준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p<.01$, 표 15 참조).

어머니의 교육수준은 국졸 이하에서 대학원 졸업까지 8단계로 구분하였는데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전문졸 이상일 경우 어린이의 생활능력 점수는 높게 나타났으며, 고졸이하일 경우는 생활능력 점수가 낮게 나타났다. 이것은 어머니의 교육수준에 따라 양육태도 도달라지기 때문에 나온 차이일 수 있다.

다. 학습장소

"어린이의 가정학습을 도울 수 있는 학습장소를 마련해 주셨읍니까?"라는 질문으로 어린이의 가

표 15. 어머니의 교육정도에 따른 생활능력

교육정도 / 평균(S.D) / 생활능력	국졸이하 평균 (S.D)	국 졸 평균 (S.D)	중 졸 평균 (S.D)	고 졸 평균 (S.D)	전문졸 평균 (S.D)	대 중 평균 (S.D)	대 졸 평균 (S.D)	대학원 평균	F
신체적 생활능력	36.36 (5.98)	36.36 (5.13)	37.34 (4.82)	37.96 (4.58)	38.38 (4.98)	39.06 (4.29)	37.82 (4.79)	39.00 (5.17)	2.50*
인지적 생활능력	82.64 (8.07)	81.30 (6.93)	84.36 (6.42)	85.08 (6.55)	84.63 (7.64)	84.29 (7.56)	83.67 (7.63)	86.11 (8.89)	4.03**
사회적 생활능력	65.24 (7.53)	63.33 (7.17)	65.36 (6.81)	65.75 (7.23)	67.00 (5.35)	67.82 (6.32)	65.85 (7.54)	67.56 (6.06)	2.06*
도덕적 생활능력	33.12 (6.20)	33.32 (4.30)	34.57 (4.31)	35.28 (4.28)	35.50 (3.66)	37.41 (3.41)	35.82 (4.35)	38.44 (3.13)	5.81**

*p<.05 **p<.01

표 16. 학습장소의 有無와 종류별 분포

학습장소有無	N(%)	종류별	N(%)
학습장소有	664(78.3)	책	558(100.0)
		책상	568(100.0)
		책꽂이	520(100.0)
		공부방	403(100.0)
		전기조명	241(100.0)
		기타	23(100.0)
학습장소無	184(21.7)		
계	848(100.0)		

표 17. 학습장소 有無에 따른 생활능력

학습장소有無 / 생활능력	有	無	T
신체적 생활능력	37.79 (4.65)	36.49 (5.36)	3.24**
인지적 생활능력	84.30 (6.90)	83.10 (7.00)	2.08*
사회적 생활능력	65.80 (6.93)	63.77 (7.62)	3.43**
도덕적 생활능력	35.31 (4.18)	33.28 (4.91)	5.60**

*p<.05 **p<.01

정에 학습장소가 마련되었는지의 여부와 내용을 알아보았다. 학습장소에는 책, 책상, 책꽂이, 공부방, 전기조명등이 포함되었는데 결과는 표 16과 같다.

표 16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학습장소가 마련된 경우는 78.3%이었고, 종류별로 본 결과 전기조명이외의 학습장소는 준비가 잘되어 있었다. 공부방을 갖고 있는 어린이는 47.5% 정도로 나타났다.

학습장소 有無에 따른 생활능력의 차이를 보기 위하여 T검사를 통해 검증하였으며 결과는 표 17과 같다.

표 17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가정에서 어린이에게 학습장소를 마련해 주는 것이 학습장소를 마련해 주지 못하는 경우보다 생활능력이 발달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린이의 생활능력도 환경의 영향을 받아 발달상에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라. 건강진단

"부모님들께서 어린이가 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어린이의 학교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건강진단을 하셨읍니까?"라는 질문에서 건강진단을 받은 어린이는 49.4% (N=419) 이었고,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어린이는 50.6% (N=429)로 나타났다. 그리고 건강진단의 내용별 조사를 보면 표 18과 같다.

어린이가 받은 건강진단 有無에 따른 생활능력의 차를 T검증한 결과는 표 19와 같다.

결과적으로 입학하기 전에 어린이가 받은 건강진단 有無에 따라 생활능력의 차이가 매우 유의미하게 나왔다(p<01, 표 19참조). 따라서 어린이가 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건강 진단을 받는 것은 중

표 18. 건강진단의 내용별 분포

내 과	안 과	치 과	이비인후과	신 장	체 중	기타
262 (100.0)	116 (100.0)	233 (100.0)	102 (100.0)	136 (100.0)	202 (100.0)	50 (100.0)

표 19. 건강진단 有無에 따른 생활능력

건강진단有無 / 생활능력	有	無	T
신체적 생활능력	38.14 (4.63)	36.89 (4.97)	3.77**
인지적 생활능력	84.87 (6.63)	83.23 (7.13)	3.47**
사회적 생활능력	66.23 (6.82)	64.51 (7.33)	3.55**
도덕적 생활능력	35.69 (4.15)	34.07 (4.54)	5.42**

**p<.01.

요하 며, 그것은 어린이의 건강상태에 유의를 했느냐의 여부가 어린이 생활능력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3) 기 타

어린이가 입학하기 전에 교육기관인 유아원이나 어린이집 그리고 유치원에 다닌 경험이 어린이의 생활능력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결과적으로 유아원의 경험有無에 따라서 어린이의 생활능력 차이가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어린이집의 경험 有無에 있어서는 사회적 생활능력만이 차이를 보였다(p<.05). 그리고 유치원의 경험有無에 따르는 생활능력의 차이를 T검증한 결과 신체적 생활능력과 도덕적 생활능력만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표 20 참조).

그밖의 환경적인 변인 가운데 어린이의 주거형태 및 주거지역, 종교, 주양육자의 종류에 따라서 어린이의 생활능력이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3. 어머니와 교사간의 어린이 생활능력 평가의 비교

어린이의 생활능력 준비정도를 평가하는데 있어 어머니와 교사간의 차이를 알아보았다. 교사는 남자가 3명이었고 여자가 17명이었으며, 교육정도는 대학졸이 17명, 대학원졸이 3명 이었다.

이들 교사와 어머니간의 생활능력 평가의 차를 T검사를 통해 검증한 결과는 표 21과 같다.

표 21에서와 같이 어머니와 교사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것은 신체적, 인지적 생활능력에 관한 것이었다 (p<.01). 그리고 사회적, 도덕적 생활능력도 어머니가 교사보다 높게 평가했으나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예외적인 것은

표 20. 유아원, 어린이집, 유치원의 경험有無에 따른 생활능력

교육기관 / 경험有無 / 생활능력	유 아 원			어 린 이 집			유 치 원		
	有	無	T	有	無	T	有	無	T
신 체 적	37.89 (5.17)	37.46 (4.80)	0.77	37.94 (4.65)	37.44 (4.86)	−1.01	37.97 (4.54)	37.21 (15.00)	0.23*
인 지 적	83.82 (6.80)	84.07 (6.95)	−0.31	84.74 (6.23)	83.94 (7.02)	1.11	84.29 (7.28)	83.87 (6.70)	0.85
사 회 적	65.44 (6.84)	65.35 (7.17)	0.11	66.76 (6.91)	65.15 (7.15)	2.18*	65.77 (7.04)	65.10 (7.15)	1.34
도 덕 적	35.73 (4.36)	34.78 (4.48)	1.87	35.48 (4.33)	34.77 (4.43)	1.52	35.64 (4.25)	34.37 (4.47)	4.09**

*p<.05 **p<.01

표 21. 어머니와 교사간의 생활능력 평가비교

평균점수차 / 생활능력	어머니	교 사	T
학습준비능력	10.55(1.67)	8.25(2.02)	6.06**
기구사용능력	16.76(2.95)	13.75(3.11)	4.50**
운동능력	10.20(1.54)	8.65(1.90)	4.42**
신체적 능력	37.51(4.84)	30.65(5.05)	6.26**
기 억 력	11.33(1.03)	11.10(1.12)	0.98
공간지각	20.62(2.21)	18.00(2.45)	5.23**
수 개 념	9.23(1.74)	7.80(1.58)	3.66**
시간개념	7.77(1.40)	6.25(1.30)	4.81**
전달능력	9.77(1.49)	9.60(1.60)	0.51
인 내 력	9.16(1.65)	8.45(1.64)	1.90
자 발 성	4.89(1.03)	3.96(0.95)	4.04**
판 단 력	11.27(2.14)	11.5(2.74)	0.24
자 제 력	6.58(1.30)	6.05(1.10)	1.80
인지적 능력	84.05(6.93)	76.30(7.53)	4.93**
정리능력	7.41(1.44)	7.30(1.63)	0.35
적 응 력	9.26(2.14)	9.05(2.16)	0.43
책 임 감	4.40(1.25)	3.95(1.05)	1.61
협 동	7.38(1.27)	7.35(1.39)	0.10
동 일 시	4.68(1.06)	6.15(1.66)	−6.05**
청 결	6.12(1.60)	6.75(0.91)	−1.75
배 설	8.63(0.83)	8.05(1.19)	3.07**
의 복	10.35(1.81)	9.75(1.74)	1.46
식 사	7.13(1.50)	6.65(1.79)	1.41
사회적능력	65.36(7.13)	65.00(8.92)	0.22
예 의	12.30(2.06)	12.25(2.55)	0.11
준 법	9.06(1.51)	8.65(1.39)	1.20
복 종	7.95(1.16)	7.80(1.51)	0.58
생 의 미	5.56(1.75)	6.10(1.45)	−1.37
도덕적능력	34.87(4.43)	34.80(4.93)	0.07

협동, 동일시, 생의 의미에 관한 것은 어머니보다 교사가 높게 평가 하였다.

전체적으로 볼 때, 학습준비능력, 기구사용능력, 운동능력, 공간지각, 수개념, 시간개념, 협동 자발성, 배설에 관한 능력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Ⅳ. 논 의

본 연구는 학령기를 맞는 어린이의 생활능력 준비도와 이 생활능력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 보았다.

학령기를 맞는 어린이의 생활능력은 성숙에 따른 발달과업을 중심으로 조사한 결과 잘 준비 되어 있는 경우가 57.9%, 보통인 경우가 26.5% 그리고 미숙한 상태가 15.6%로 나타났다.

생활능력을 각 발달별로 비교한 결과 신체적 생활능력이 가장 잘 발달되어 있었고, 다음은 도덕적 생활능력이었으며 인지적, 사회적 생활능력 순으로 나타났다. 여기에서 학령기를 맞은 만 6세에서 7세의 어린이는 활동적인 시기이므로 신체적 생활능력이 가장 우수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고, 역시 사회적인 생활능력은 부족함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사회적 생활능력은 학교에 입학한 후 교우관계가 형성되면서 급속히 발달되어질 것으로 본다. 또한 양육적인 면에서 볼때 본 연구의 대상자인 어린이가 사회적 생활능력이 가장 부족한 이유는 어머니의 지도방법에 있어서 어린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도 어머니 자신이 대신 해주고 경험하도록 하지 않았기 때문에 준비가 늦어지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즉 어머니의 과보호적인 양육태도가 어린이의 생활능력 특히 사회적 생활능력의 발달을 지연시키기 쉽다는 것이다. 사회적 생활능력 가운데에서도 어린이의 적응력 특히 지역사회의 공공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이 낮게 나타난 것은 양육적인 면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인지적 생활능력도 비교적 발달이 낮게 나타났는데, 이것은 이시기의 어린이가 정서적으로 좀 불안한 시기이므로 정서성과 관계된 지적발달의 능력이 좀 미숙한 것으로 본다.

각 발달별로 분석해 보면 신체적 생활능력 가운데에서 가장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은 기구사용능력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Gesell(1946)이 시기의 아동은 아직 정밀한 motor skill을 요구하는 기

구사용은 서툴다고 한 것과 일치되는 결과이다. 인지적 생활능력 중에서는 자제력이 가장 부족했는데 이것도 이 시기의 어린이가 아직 자기중심성을 탈피하지 못하고, 정서적인 불안정이 작용하기 때문인 것이다.

사회적 생활능력에서는 동일시에 관한 것과 적응력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Freuel의 발달단계에 의하면 만 3세부터 6세까지는 생식기기(phallic stage)로서 이시기의 어린이는 성별에 관심을 갖게 된다. 성별은 물론 사람을 구별하게 되어 형제 상호간에 부모의 사랑을 독점하려고도 한다. 이와같은 사회생활은 질투나 분노등의 감정이 생기므로 아동의 성격 및 자아의 발달에는 부모와의 동일시가 필요한 것이다. 이와 같이 동일시 작용이 이 시기의 어린이에게 충분히 형성될 수 있는 능력인데도 준비도가 낮은 것은 질문의 내용을 어머니나 교사가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 같다. 또한 적응력의 부족은 어머니들의 과보호에 의한 경험부족 때문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어린이의 욕구가 자발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하며 현실에 적응하여 해결할 수 있는 교육방법이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도덕적 생활능력 중에서는 생의 의미에 대한 이해도가 가장 낮았었다. 이것은 어머니들이 어린이가 인식하고 있는 성역할등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고, 또한 성을 기피하고, 비밀시하는 편견이 작용했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다.

어린이의 생활능력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결과 어린이의 가정환경 및 취학전의 생활경험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모두 국민학교 1학년생이지만 연령에 따라 생활능력에는 차이가 있었다. 연령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것은 신체적, 사회적 생활능력이었다. 그리고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신체적, 인지적, 사회적 생활능력은 증가하였으므로, 발달에서 시기적인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도덕적 생활능력은 연령의 증가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것은 도덕적 생활능력은 성숙 보다도 환경적인 요인에 더 영향을 받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성별에 따른 생활능력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남자 어린이보다 여자 어린이의 생활능력이 더욱 발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생활능력을 재는 척도가 여자 어린이에게 적합한 것이 더 많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양육태도면에서 볼때 어머니는 여자 어린이보다 남자 어린이에게는 더 과보호적으로 대해 주기 때문에 남자는 여자보다 생활능력의 발달이 늦어진다고 볼 수도 있다.

어린이의 출생순위에 따라서 생활능력이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므로, 형제간의 서열이 생활능력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지는 않다.

어린이의 생활능력 발달에 있어서 가정환경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가정의 생활정도나, 어머니의 교육정도에 따라 어린이의 생활능력간에 차이가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가정에서 어린이에게 학습장소를 마련해 줄때 생활능력이 더욱 발달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도 가정의 생활정도나 부모의 교육적 관심과 관계되는 것이다. 특히 어린이가 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와 안 받은 경우간에 생활능력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는데, 부모들은 어린이의 입학전에 반드시 건강진단을 받아서, 어린이의 신체적 성장 및 상태가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된다.

이와 같은 결과는 Duvall(1967)이 연구를 통해서 어린이가 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이전단계의 발달과업이 수행되었는지의 여부를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 것과 관계된다. 즉 어린이의 성장에 따른 학습이 중요하며, 어린이뿐 만 아니라 가족모두가 발달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조기교육이 강조되고 있는 현추세에서 유아원, 어린이집, 유치원을 다닌 경험이 취학후 어린이의 생활능력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 보았다. 전체 어린이중 유아원에 다닌 경험이 있는 어린이는 9.9% (N=84)이었고, 어린이집에 다닌 적이 있었던 어린이는 12.4%(N=105) 이었다. 그리고 유치원에 다닌 적이 있었던 어린이는 39.3% (N=333으로 나타났으며 다닌 기간을 보면 6개월에서 1년 6개월 정도 다닌 어린이가 대부분이었다. 유아

원과 어린이 집을 다닌 경험이 있는 어린이가 생활능력별 평균 점수는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그러나 유치원을 다닌 경험의 유무에 따라서는 신체적, 도덕적 생활능력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여기에서 취학전 교육기관에 다닌 경험이 있는 어린이가 없는 어린이보다 생활능력의 준비가 좀 낫다고 볼 수 있을것 같다.

이와같이 어린이의 가정환경 및 초기의 사회환경을 통한 경험은 어린이의 생활능력 발달에 중요하므로 취학전 가정에서 부모들은 어린이의 각 발달단계에 따른 발달과업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지도와 보호를 하여야 된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 주목할만한 것은 어린이의 생활능력 정도를 평가하는데 있어 어머니가 교사보다 높게 본 점이다.

이것은 생활능력을 재는 척도가 가정생활 중심이기 때문에 나온 결과일 수도 있고, 어머니들의 자기자녀에 대한 평가가 주관적인 반면에 교사는 어린이의 생활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했기 때문에 나온 차이일 수도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서 제시할 수 있는 것은 현재 우리나라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과보호적임에도 불구하고, 학령기를 맞는 어린이의 생활능력이 보통 이상인 경우가 약 84.4%로 나타났으므로 사회적인 발전과 경제적인 안정에 따라 취학연령의 단축도 재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가정의 양육변인과 사회환경의 구체적인 요인이 어린이의 생활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며 본 연구를 끝내고자 한다.

참 고 문 헌

1. Gesell, A. & L.I. Frances (1946), *The Child From Five To Ten*, New York: Harper & Brothers.
2. Tompson, G. G. (1962), *Child Psychology*, Boston: Houghton.
3. Hurlock, E.B. (1978), *Child Development*, 6th ed. New York: Mac Graw-Hill.
4. Ames, L.B. & Frances L. IlG (1977), *Your Five-Year-old*, NewYork: Pelacorate Press.
5. Hedges, W. D. (1977), *What age Should Children Enter First Grade:* A Comprehensive Review the Research Ann Arbor, Mich.: University Microfilms International.
6. Piaget, J. (1971), *The child's concepton of the world*, ed. C.K. ogden, London: Routledge & Kegan Daul LTD.
7. Selman, R.L. (1971), "The Relation of Role Taking To the Development of Moral Judgement in Children" *Child Development*, 42, pp. 79-91.
8. Selman, R.L., 앞글.
9. 임형진, 김계한, 서수현, 우창웅 (1972), 「아동발달과 생활지도」, 서울 : 왕문사.
10. Hurlock, E.B., 앞 글.
11. 김행자 (1977), 「아동발달」, 서울 : 수학사
12. 김행자, 앞 글.
13. Mc Connell' T.R. (1956), *General Nature of Developmet in C.E. Skinner:* Educational Psychology, Englowood Cliffs N.Y.: Prentice-Hall
14. Havighurst, Robet J. (1972), *Developmental Tasks and Education* 3rd ed., New York: David Mckay.
15. Duvall, E.M. (1967), *Marriage and Family Development*, fifth ed., New York: J.B. Lippincott.
16. Bigelow, B.J. (1977), "Children's Friendhip Expectations: A Cognitive-developmental Study," *Child Development*, 48, pp. 246-253.
17. Duvall, E.M. (1967), *Family Development*, 3rd ed, New York: J.B. Lippincott.
18. Kaspar, J. C. & R. Lowenstein (1971), "The Effect of Social Interaction on Activity Levels in Six to Eight-Year-old Boys", *Child Development*, 42, pp. 1291-1298.
19. Offenbach, S.I., Regina Baecher, and marge white (1972), "Stability of first-Grade Children's Dimensional Preferences," *Child Development*, 43, pp. 689-692.